

# -답시고

~한답시고 — ~한다는 핑계로

그 사람이 스스로 내세운 명분을 인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표현입니다.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했는지 전하면서,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.

## ■ 결합 방법

| 품사        | 형태       | 예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동사        | -(느)ㄴ답시고 | 돕다 → 돕는답시고    |
| 동사, 모음 어간 | -ㄴ 답시고   | 공부하다 → 공부한답시고 |
| 형용사       | -답시고     | 바쁘다 → 바쁘답시고   |
| 명사        | -(이)랍시고  | 전문가랍시고        |
| 뒤 절       | 나쁜 결과    | 일을 더 망쳤다      |
| 평가        | 항상 비판적   | 중립적일 수 없음     |

## ■ 언제 쓰나요

이 어미는 간접 인용 형태를 바탕으로 합니다. 동사는 -(느)ㄴ답시고, 형용사는 -답시고, 명사는 -(이)랍시고를 씁니다: 돕는답시고, 바쁘답시고, 전문가랍시고.

앞 절은 행위자가 내세운 이유를 말하고, 뒤 절은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전하며,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: 돕는답시고 나섰다가 일을 더 망쳤다.

비판은 어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. 중립적으로 쓸 수 없고, 받아들일 만한 이유에 대해서도 쓸 수 없습니다.

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쓰거나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쓰며, 뒷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공손하게 쓸 수 없습니다.

## ■ 예문

- 1 돕는답시고 나섰다가 일을 더 망쳐 놓았다.
- 2 공부한답시고 방에 들어가더니 게임만 했다.
- 3 바쁘답시고 연락 한 번 없더군요.
- 4 전문가랍시고 나서서 엉뚱한 소리만 했다.
- 5 직접 만든답시고 손댔다가 오히려 망가뜨렸어요.
- 6 선물이랍시고 준 게 겨우 이거였다.

## ■ 비교

**-(으)ㄴ/는 척하다**  
척하다는 누군가가 연기를 했다는 뜻이고, 답시고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꾸밈과 핑계의 차이입니다.  
돕는 척했어요. (돕는 척함) / 돕는답시고 망쳤어요. (돕는다더니 망침)

**-(으)려고**  
-(으)려고는 목적을 중립적으로 말하고, 답시고는 비웃듯이 인용합니다.  
도우려고 나섰어요. (도우려고 나섬) / 돕는답시고 나섰어요. (‘돕는다’며 나섬)

**-기로서니**  
둘 다 나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. 기로서니는 이유를 인정하 뒤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, 답시고는 이유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.  
바쁘기로서니 연락도 못 하나? (바쁜 건 알겠지만) / 바쁘답시고 연락도 없더라. (‘바쁘다’면서)

## ■ 주의

- ✗ 돕는답시고 나서서 큰 도움이 되었다.
- 돕는답시고 나섰다가 일을 더 망쳤다.  
이 어미는 내세운 이유를 거부합니다. 좋은 결과가 오면 어미의 뜻과 어긋납니다.
- ✗ 부장님께서 바쁘답시고 못 오셨습니다.
- 부장님께서 바쁘셔서 못 오셨습니다.  
답시고는 그 사람 자신의 설명을 깎아내립니다. 뒷사람에게 쓰면 높임말을 쓰든 안 쓰든 무례합니다.
- ✗ 전문가답시고 나섰다. — ‘전문가답게’라는 뜻으로 쓴 경우
- 전문가답게 조언해 주었다.  
-답게는 ‘~에 걸맞게’라는 칭찬의 뜻입니다. -(이)랍시고는 비웃는 형태로 전혀 다른 뜻입니다.